

민주주의 이름으로 평가한 역사 속 왕들

역사의 키워드 왕을 말한다

강웅천 지음



중국의 한자사전 '설문해자'에는 왕(王)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로 꿰는 존재"로 풀이되어 있다. 물론 이는 왕이라는 존재가 신비화된 이후에 내려진 해석으로 보인다.

왕은 도끼의 모양을 본떠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왕(王)자를 분리해놓고 보면 날과 몸통, 자루를 끼우는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끼에 비유한다는 것은 도끼가 바로 생사여탈을 권 상징을 지닌다는 의미다. 고대사회 지배자의 무덤에서 도끼가 출토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출정할 때 왕에게 도끼를 하사받고 돌아오면 이를 반납하는 것 역시 도끼가 왕을 상징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왕은 다른 어떤 권력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부자나 형제간에도 권력 싸움이 존재했다. 지경학적으로 반도의 형국인 우리나라는 외부 세력들과도 끊임없이 힘을 겨뤘다.

오늘날 우리에게 '왕'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 민주주의 관점으로 재평가한 역사 속 왕들에 관한 책이 발간됐다. 역사 강의 팟캐스트 '타박타박 역사기행'을 진행하고 있는 강웅천 씨가 '역사의 키워드 왕을 말한다'를 펴냈다.

저자는 단군왕검에서 군주의 탄생과 의미를 따져 보는 것으로 시작해 백제 무령왕 편에서는 왕과 귀족의 관계를 살펴본다.

선조 편에서는 콤플렉스가 어떻게 왕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헤쳐본다. 중종 편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가능해보고, 청나라 침입으로 백성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를 통해서도 왕권의 의미를 들여다본다.



1636년(병자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그러나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에 항복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전쟁이 끝난다. 사진은 남한산성도. <한겨레출판 제공>

어다본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과 관점으로 군주를 호칭하고 있을까. 사극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속 왕은 민족주의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다. 저자는 한국사 마지막 왕들이 외세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왕을 민중의 지배자보다 민족의 지도자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왕조는 대체로 민중 혁명으로 전복됐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일제에 의해 백성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뒀다. 한국인들에게 고종과 순종은 지배자이면서 피해자인 이중의 의미로 각인돼 있다. 과연 이러한 시각은 21세기인 오늘에도 유효한지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저자는 한 나라의 왕인 동시에 다른 제국의 신하에 지나지 않았던 '충(忠)' 자 돌림 왕들의 역사, 세종대왕

이 펼친 성군의 역사도 소개한다. 나아가 권력 사유화의 아이콘 연산군, 북벌의 정치를 주장했던 효종, 예종의 군주 현종, 탕평의 군주 영조 이야기도 특유의 관점으로 풀어낸다.

그러나 역사를 풍부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그의 리더십은 세습군주제의 산물이므로 민주적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종종 그러한 유혹에 빠져 왕과 같은 '절대적 지도자'를 바라는 일부의 왜곡된 민심을 조장한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 등장한 왕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한겨레출판·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오늘의 뱀새= '뱀새'와 '소리' 등 우리의 감각을 모두 깨워 사유케 하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이병철의 첫 시집이다. 첫 시집 '오늘의 뱀새'를 낸 시인은 2014년 '시인수첩' 신인상에 시가, '작가세계' 신인상에 문학평론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뱀새'와 '소리'를 매개로 시 세계를 활짝 펼쳐보였다. 여행과 낚시, 야구가 자기 삶의 팔 할 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작품 행간에는 이러한 원초적 미학이 녹아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문학수첩·8000원>

▲내 안의 가짜들과 이별하기=우리는 '살아있음의 환희'를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을까? 불행해도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집, 더 안정된 직장, 더 많은 인정, 심지어 더 깊은 명상 등이 가능할 때 행복해질 거라 여기며 이를 위해 '고치고 바꾸고 제거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저자는 삶을 신뢰하지 못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심장 세포 하나가 맥박이 뛰어야 한다고 결정하며 심장을 통제하려 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산티·1만6000원>

▲해적판을 타고=이 책은 한 가족의 마당에 유해 폐기물이 묻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해결할 수 없는 미래에 갇힌 듯 점점 마당 밖의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가는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라며 의문을 던진 다. 더불어 어른들의 삶과 대비되는 중2 채우나와 뒤뒤의 이야기가 작품의 다른 한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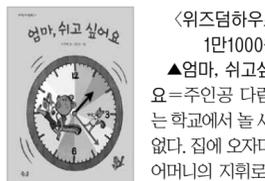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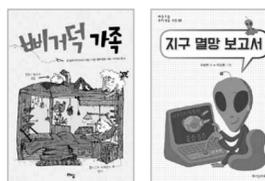
으로 등장하면서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 모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내 발아래 묻힌 유해 폐기물, 이곳을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유나와 그의 가족은 폐기물의 악몽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해직기자 이용마는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자신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담담히 풀어내는 한편, 20년 가까운 기자 생활 동안 경제·문화·통일외교·검찰·정치 등 다양한 분야를 성역 없이 취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언론의 문제점을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한다. 또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어린 세대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미 넘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뤄내야 하는 개혁안을 제시한다. <창비·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배가터가족=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핀 울레 하인리히와 라온 플뤼켄의 세 번째 작품. '우리 머릿속에 기억 저장고가 있다면? 난 엄마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채울 거야.' 온 동네를 주름잡는 골목대장 마을리나, 어느 날 엄마가 걸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진다. 하지만, 날마다 사랑의 배터리를 빼곡히 채우며 엄마랑 추억 만들기엔 나서는데... 배가터가족, 하루에도 몇 번씩 배가터거리면서도 당당하게 불행과 맞장 뜨는 마을리나의 이야기를 담았다. <리움·1만 원>

▲지구멸망보고서=만약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 책은 미리 써 보는 지구 멸망 보고서다. 미래의 어느 날,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이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은 마천루를 보며 신기해한다. 이미 인류는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섬뜩한 현실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구 멸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임과 동시에 나의 생존, 우리의 생존, 더 나아가 후손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다. <좋은음·1만2000원>



<위즈덤하우스·1만1000원>
▲엄마, 쉬고 싶어요=주인공 다람이는 학교에서 놀 수가 없다.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의 지루로 생존 훈련을 한다. 적이 나타났을 때 나무로 피신하고, 미끄러운 나무도 거침없이 오르는 연습을 한다. 다람이는 또 실 새 없이 학원으로 달려가 출석권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특별 과외를 한다. 쉬고 싶어도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느날 말 잘 듣고 착하던 다람이가 일탈했다. 마음대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니 재미있고, 자연의 소리, 새소리 듣고, 풀리면 자고,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놀다. 다람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좋은음·1만2000원>

망망대해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바닷바람을 맞으며

레이철 카슨 지음, 김은령 옮김

환경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침묵의 봄'으로 유명한 레이철 카슨은 첫 책으로 바다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를 둘러싼 바다', '바다의 가장자리' 등 일명 '바다 3부작'으로 불리는 책이다.

그 중에서도 1941년 출간된 첫 책 '바닷바람을 맞으며'는 작가 개인이 가장 애끼는 책이자, 미국의 자연주의 작가들이 꼽는 명작 중 하나로 '자연에 대한 경이와



바다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로 불린다.

책의 출발은 미국 어업국에서 발간한 11쪽 짜리 브로슈어 서문이었다.

'바다와 바다에 사는 생명들의 생생한 존재감'을 전하기 위해 집필된 책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각각의 생명체에 대한 일상을 이야기 하듯 들려준다.

책은 3부로 나뉘어 있다. 1부 '바다의 가장자리'에서는 검정제비갈매기의 모습과 북극 툰드라에 사는 바닷새의 여름 영웅담, 파도의 가장자리를 총총걸음으로

달리는 깜짝도요에 대해 들려준다.

2부 '갈매기의 길'은 넓은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태어난 후 바다 표면에서 부화해 대양을 떠다니는 플랑크톤 무리의 우여곡절, 물고기를 잡아 먹는 새와 큰 어류, 진정한 바다의 방랑자 고통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3부 '강과 바다'는 깊은 심연에 대한 이야기로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는 뱀장어에 대해 들려준다.

책은 카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주제였던 "수억년을 견뎌온 해양 생명체의 생태학적 관계, 그리고 가장 미세한 생명체마저도 포용하는 본질적인 불멸성"을 다룬다.

카슨의 전기 작가인 린다 리어의 서문과 하워드 프레이치의 삽화, 용어 설명도 실려 이해를 돕는다. 출판사에 코리브르는 '레이철 카슨 전집'을 통해 나머지 두권도 출간할 예정이다. <에코리브르·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기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육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1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편선,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편선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편선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